

###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두자신탁(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채권))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비교지수 대비 펀드의 목표 듀레이션을 결정한 후, 국채와 공사채 및 회사채 또는 단기 채권과 장기채권 간의 상대가치를 분석하여 섹터 및 수익을 곡선상 자산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추구합니다.

- 수익률 제고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 추구를 위하여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는 투자 유니버스 내에서 신용도 개선이 예상되거나 펀드 멘탈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 또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4억 원

-퇴직연금코리아증권모1(채권) 839억 원

펀드유형 채권형, 모자형, 종류형  
- 모두자신탁 편입비: 60% 이상  
- 모두자신탁 채권편입비: 70% 이상(단, 국공채에서의 투자 60% 이상)

### 설정일

(운용펀드 : 2008년 07월 29일)

- 클래스 A : 2010년 10월 19일
- 클래스 C : 2010년 02월 04일
- 클래스 C-E : 2009년 09월 0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3년 05월 13일
- 클래스 C-W : 2010년 02월 08일
- 클래스 S : 2017년 01월 03일
- 클래스 S-P2 : 2018년 01월 24일

벤치마크 매경BP종합(국공채) 6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30% + Call 10%

신탁업자 국민은행

###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3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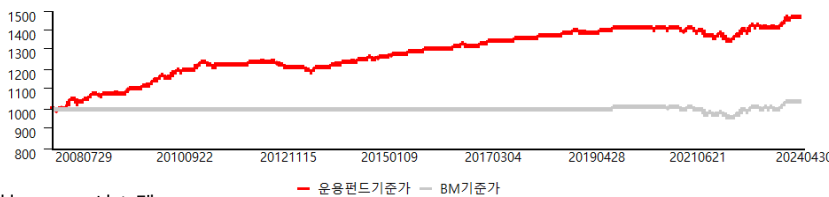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0.33%	0.16%	3.96%	3.15%	6.69%	4.14%	5.98%	46.35%
클래스 A	-0.37%	0.02%	3.66%	2.56%	5.47%	2.34%	2.94%	17.48%
클래스 C	-0.39%	-0.02%	3.58%	2.40%	5.15%	1.88%	2.17%	22.37%
클래스 C-E	-0.38%	0.01%	3.64%	2.51%	5.36%	2.20%	2.70%	24.66%
클래스 C-P2(연금저축)	-0.38%	0.01%	3.64%	2.50%	5.36%	2.19%	2.69%	11.05%
클래스 C-W	-0.33%	0.16%	3.96%	3.15%	6.66%	3.87%	5.22%	28.37%
클래스 S	-0.36%	0.07%	3.77%	2.76%	5.89%	2.96%	3.99%	8.42%
클래스 S-P2	-0.35%	0.09%	3.82%	2.87%	6.08%	3.20%	4.31%	6.94%
벤치마크	-0.21%	0.38%	4.20%	3.57%	6.54%	3.47%	-	3.87%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 자산 구성 현황 (2024년 04월말, 모두자신탁 기준)

<전체>



<채권 종류별>



###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4년 04월말, 모두자신탁 기준 채권비중)

종목명	비중(%)	종목명	비중(%)
한국철도공사224	12.2	지에스에너지6-3	6.0
국고03750-3312(13-8)	8.5	국고02375-2703(22-1)	5.8
케이비캐피탈449-4	8.2	롯데카드480-3	4.9
국고03875-2612(23-10)	7.3	롯데캐피탈263	4.7
경기주택도시공사22-12-53	6.1	국고01875-2606(16-3)	4.6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 보수 및 수수료

###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0.5825% (판매 0.35%)
- 클래스 C : 총 연 0.7325% (판매 0.5%)
- 클래스 C-E : 총 연 0.6325% (판매 0.4%)
- 클래스 C-P2(연금지속) : 총 연 0.6325% (판매 0.4%)
- 클래스 C-W : 총 연 0.2325% (판매 0%)
- 클래스 S : 총 연 0.3825% (판매 0.15%)
- 클래스 S-P2 : 총 연 0.3525% (판매 0.12%)

(공통사항)

운용 0.2%, 신탁 0.02%, 사무관리0.0125%

###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 C, C-E, C-P2, C-W: 없음

### 환매수수료

없음

##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월초 시장은 미국 3월 제조업 PMI가 확장세로 돌아서고 이후 미국 물가와 고용 서프라이즈 기록하며 연초의 과도했던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하였습니다. 국내는 4월 금통위 만장일치 동결로, 통방문에서 '긴축 기초 충분히 장기간 지속' 문구가 '긴축 기초 충분히 유지'로 변화되면서 시장이 강세 전환되었습니다. 총재가 미국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탈동조화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점도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급등했던 유가와 환율은 확전 가능성이 낮아지며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미국 3월 소매판매 서프라이즈 발표 후, 파월이 인플레이가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이 없으면 금리인하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미국채 2년물 장중 5% 터치하였고 월 후반, 민간소비 개선되며 국내 1분기 GDP 서프라이즈 발표에 국내 채권시장은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1분기 GDP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한편, PCE 물가는 컨센서스 상회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등장하기도 했으나 5월 FOMC에서 파월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일축 및 금리인상 배제 발언으로 안도감 보이며 약세폭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국고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20.6bp 상승한 3.525%, 10년 금리는 24.8bp 상승한 3.65%로 마감하였습니다.

펀드 듀레이션은 평가 기간 중 BM대비 99% ~ 104% 수준에서 운용하였으며, 듀레이션 효과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익률 곡선에서는 BM대비 상대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2년 이하 단기 구간 O/W에 힘입어 커브 효과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가운데 여전히 O/W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O/W된 국고 2~3년 구간의 부진으로 전반적인 섹터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듀레이션 헤지를 위한 선물 포지션의 평가손과 국고13-8, 국고24-2 등의 종목 효과 부진이 더해졌습니다.

##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국내 근원물가는 미국과 달리 안정적인 둔화 흐름 이어지고 있으나 헤드라인 물가는 유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둔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란 간 확산 우려는 완화되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잔존하고, 민간소비, 수출 등 주요 항목이 대폭 개선되며 국내 1분기 GDP 성장률이 컨센을 크게 상회하며 기준금리 인하의 주요 논거인 내수 부진 논리 약화되었습니다. 국내 성장을 전망의 상향 압력은 5월 한은의 수정경제전망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5월 금통위에서는 매파적 색채가 짙었던 조운제, 서영경 금통위원 퇴임 후 새로운 금통위원 2인이 등장해 시장은 포워드 가이던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 이후 고용지표가 계속 견고하게 발표되면서 고용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진 가운데, 5월 FOMC에서 파월이 고용시장 냉각 시 금리인하를 고려한다고 언급하여 4월 고용이 컨센보다 부진할 경우 강세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탈동조화를 강조하고 ECB, BOE 등 주요국이 금리인하를 시사한 점은 미국과의 통화정책 비동조화 진행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통화정책 경계감을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국고채 전 구간 기준금리를 상회하며 레벨 메리트 회복되어 저가매수 수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내 금리인하 기대 자체가 소멸되긴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인하 사이클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금리의 추세적 하향 경로 유호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전월에 이어 듀레이션 중립 이상 수준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고 3년 기준 3.35~3.65% 국고 10년 기준 3.50~3.80% 전망됩니다.

4월 총선은 야권의 압승으로 추경 우려 부각되어 국고 10년물 중심 금리 상방 압력 확대되었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민생회복지원금 13조를 포함해 총 15조로, 한국 1분기 GDP 서프라이즈에 우려 다소 경감됐으나 추경집행이 본격화될 시 수급 부담에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 상승하며 커브 스틱 압력 받을 전망입니다. 5월 FOMC에서 6월부터 미국 QT 규모를 현행 월 950억 달러에서 PD들의 전망치보다 더 큰 규모인 600억 달러로 축소할 것으로 발표되며 수급 부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 감소되었으나 연내 인하 가능성이 더 큰 상황에서 정책금리보다 높게 형성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 대비 상대적으로 더 큰 메릿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 10-3년 스프레드 10~25bp, 국고 30-10년 스프레드 -25~-5bp 전망되며 기준금리 인하 가시화 전까지 박스권 흐름 예상되어 스프레드 레인지 상하단 접근 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반한 캐리 확보 목적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 레벨 부담, 부동산PF발 펀더멘털 우려 등으로 신용 스프레드 확대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작년 11월 이후 지속된 강세 누적으로 현재 신용 스프레드는 Yield Ratio 관점에서 볼 때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되는 가운데, 국채 역캐리 해소, 금리 레벨 부담 등으로 크레딧 수요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신용 스프레드 약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부동산PF 관련 업종(여전업, 건설업 등) 내 부동산PF 익스포처에 따른 차별화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고등급 크레딧 위주로 운용하되 일드 메릿이 양호한 단기 종목 편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